

## <제3강>

### 국어 음운의 변동 1

1. 음운의 변동이란? : 원래의 음운 모습 그대로 발음되지 않고 바뀌어 나는 것으로, 그 자체에서 변하던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아 변하던 바뀌어서 발음되는 것은 모두 여기에 속한다.1)

#### 2. 유형

##### 1) 대치

(1) 교체 :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음절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경음화), 활음화, 비음화.

(2) 동화 : 한쪽의 음운이 다른 쪽 음운의 성질을 닮아가는 현상. 비음동화, 유음화, (경)구개음화. 모음조화, 이-역행동화(=움라우트), 연구개음화, 양순음화

2) 축약 :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현상. 거센소리되기(激音化), 단모음화, (음절 축약).

3) 탈락 : 두 음운 중 어느 하나가 없어지는 현상. 자음군단순화, ‘ㄹ’탈락, ‘ㅎ’탈락, ‘ㅡ’탈락, 동모음탈락.

4) 첨가 : 형태소가 합성될 때 그 사이에 음운이 덧붙는 현상. 사잇소리현상(‘ㄷ’첨가, ʔ첨가, ㄴ첨가)

5) 이화 : 이질음으로의 교체.

#### 3. 음운 규칙

‘XAY → XBY’는 ‘A→B/X\_\_\_\_Y’로 형식화할 수 있다. 이처럼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뀐 음운 현상을 형식화한 결과를 음운 규칙이라 한다. 이 규칙이 의미하는 바는 “A가 X와 Y 사이에서 B로 바뀌었다”이다.

#### 4. 음운의 변동

1) 교체 : 음절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활음화

(1) 음절 끝소리 규칙(음절말 평파열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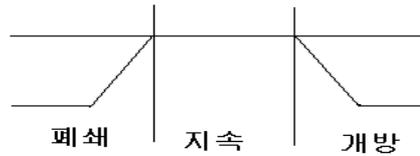
---

1) 음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발음의 편리와 표현의 효과라는 상반된 두 측면에서 기능적인 원리를 찾을 수 있다. 발음의 편리는 음운의 동화와 탈락 등이 해당되고, 표현의 효과는 음운의 이화나 첨가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자질의 바뀔에 의하여 해당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대치 현상이 가장 많다. 이것은 음운을 탈락시키거나 첨가시키는 획기적인 변이보다 변이의 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대치가 발음의 편리와 함께 표현의 효과도 크게 손상시키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김광해 외, 2004 :115-117).

① 음절말의 위치에서 모든 장애음이 ‘ㅂ, ㄷ, ㄱ’ 중 하나로 바뀌는 현상으로, 이때 평음화 뿐만 아니라 폐쇄음화도 동시에 일어난다.<sup>2)</sup>

예) 날, 낫, 낫, 낫, 날 → [날]

② 원리적으로는 음절말에서 불파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며, 국어의 음절구조제약 때문이기도 하다. 파열음과 파찰음은 ‘폐쇄 → 지속 → 개방’의 단계를 거쳐 발음된다. 음절말에서는 ‘개방’이 되지 않고 불파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제 음가대로 실현되지 않고 대표음으로 바뀌고, 뒤에 오는 평장애음은 된소리로 발음된다.



③ 다른 음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음절말이라는 분절음의 위치 때문에 일어나는 자음 단독의 현상이다.

④ 규칙의 적용 조건

ㄱ. 7개 자음 외에 다른 자음이 음절말의 위치에 오면서 뒤에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거나 자음으로 시작되는 음절이 연결되면 7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발음된다.

• 규칙 : [{ㄱ, ㄱ}, {ㅅ, ㅅ}, {ㅈ, ㅈ}, {ㅊ, ㅊ}, {ㅌ, ㅌ}, {ㅍ, ㅍ}] → [ㄱ, ㄷ, ㅂ] / ---- {#, C}

ㄴ. 후속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하더라도 실질형태소이면 음절끝소리규칙이 적용된다.

**[표준 발음법 : 받침의 발음]**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밭 아래[바다래]    늪 앞[느밭]                    짓어미[저더미]  
 맛없다[마덜따]    곁웃[거둔]                    헛웃음[허두슴]    꽃 위[꼬뒤]

다만, ‘맛있다, 멋있다’는 [마신타], [머신타]로도 발음할 수 있다.

[붙임] 겹받침의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옮겨 발음한다.

넋없다[너겹따]    닭 앞에[다가페]    값어치[가버치]    값있는[가빈는]

⑤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후속 형태소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이면 받침은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되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겹받침에서는 두 번째 자음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이어져 발음된다.

깎아 [까까]    옷이 [오시]    ]있어 [이써]    낮이 [나지]    꽃아 [꼬자]    꽃을 [꼬출]

2) 음절 끝소리 규칙은 음운의 교체로 볼 수 있고, 대표음으로 실현된다는 점에서는 중화로 볼 수도 있다.

낮이 [낙씨]    앓아 [안자]    닭을 [달글]    젊어 [절머]    굶이 [골씨]    훑아 [할타]

## (2) 된소리되기(경음화)

표준발음법 23항 ~ 27항까지를 보고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조건을 정리해 보자.

### [표준 발음법 : 제6장 경음화]

제23항 받침 ‘ㄱ(ㄲ, ㅋ, ㆁ, ㄷ), ㄷ(ㅌ, ㅍ, ㅊ, ㅌ, ㅍ, ㅊ), ㅂ(ㅃ, ㅍ, ㅍ, ㅍ)’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국밥[국뽕]    깎다[깎따]    샅돈[샅똥]    닭장[닥짱]    뺨대다[뺨때다]  
웃고름[온꼬름]    있던[일똥]    꽃고[꼇꼬]    꽃다발[꼇따발]    발갈이[발까리]  
솔전[솔똥]    곱돌[곱똥]    덩개[똥개]    넓죽하다[넙쭈카다]    값지대[갑찌다]

제24항 어간 받침 ‘ㄴ(ㄴ), ㅁ(ㅁ)’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신고[신:꼬]    꺾안다[껴안따]    앉고[안꼬]    었다[언따]  
삼고[삼:꼬]    더듬지[더듬찌]    닭고[담:꼬]    젊지[점:찌]  
다만,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안기다    감기다    굶기다    옮기다    <참고. 申告, 金庫>

제25항 어간 받침 ‘ㄹ(ㄹ), ㄷ’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넓게[널께]    훑다[할따]    훑소[훑쏘]    똥지[똥:찌]

제26항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갈등[갈똥]    말살[말쌀]    갈증[갈쭙]    몰상식[몰쌍식]    불세출[불썰출]  
다만, 같은 한자가 겹쳐진 단어의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허허실실[허허실실](虛虛實實)    절절 - 하다[절절하다](切切 - )

제27항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할 것을[할꺼슬]    갈 데가[갈떼가]    할 바를[할빠를]    할 수는[할쑤는]  
할 적에[할쩌께]    갈 곳[갈꼇]    할 도리[할뜨리]    만날 사람[만날싸람]  
다만, 끊어서 말할 적에는 예사소리로 발음한다.  
[붙임]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할걸[할겉]    할밖에[할빠께]    할세라[할쩌라]  
할수록[할쑤록]    할지라도[할찌라도]

## (3) 활음화(= 반모음화)

- 개념 : ‘이, 오, 우’ 등이 ‘아’ 또는 ‘어’ 앞에서 활음으로 변화하는 현상. 단모음이 성절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음절이 하나 줄어든다.

① y-활음화 : 어간이 다음절이면 반드시 일어난다.

예) 이기어라 - 이겨라. (비교) 피어 : 피어~퍼(수의적)

② w-활음화 : 다음절 어간 중 말음절이 '우'이면 필수적으로 일어난다.

예) 배우었다 → 배웠다 (비교) 구었다 : 구었다 ~ 꿔다(수의적)

- 활음화가 적용되면 음절이 하나 줄어드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 장모음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단 '이-(載), 오-(來)'와 같이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1음절 어간, '치-, 찌-, 지-'와 같이 '경구개음+이'의 구조로 된 1음절 어간에는 보상적 장모음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 ㄱ. y-활음화 : 피+어서→[피:서], 끼+어서→[끼:서], 지+어서→저서→저서

ㄴ. w-활음화 : 보+아서→[봐:서], 주+아서→[쥬:서], 오+아서→와서

## 2) 음운의 동화 : 자음동화, 구개음화, 모음동화, 모음조화

- 개념 : 인접한 두 소리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소리를 닮아서 그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소리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 현상.<sup>3)</sup>
- 원인 : 발음상의 편리. 조음 위치가 가깝거나 조음방법이 비슷한 소리가 연속될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발음할 때 힘이 덜 들기 때문이다.

### (1) 자음동화(자음에 의한 자음의 동화)

#### ① 비음화(鼻音化)

ㄱ. 비음동화 : 평파열음이 비음과 만나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 규칙 : [ㅂ, ㄷ, ㄱ] → [ㅁ, ㄴ, ㅇ] / \_{ㅁ, ㄴ}

<표준발음법 제18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ㅌ, ㅍ, ㅊ, ㅌ, ㅍ, ㅈ), ㅂ(ㅃ, ㅍ, ㅍ, ㅍ)'은 'ㄴ, ㅁ' 앞에서 [ㅇ, ㄴ, ㅁ]으로 발음한다.

먹는[멍는], 국물[궁물], 깎는[깁는], 키웁만[키음만], 뭉뭉이[몽뭉씨], 굽는[궁는], 흙만[흥만],  
닫는[단는], 짓는[진:는], 옷맵시[온맵씨], 있는[인는], 맞는[만는], 젓명울[전명울], 쫓는[쫘는],  
꽃망울[꼰망울], 붙는[분는], 놓는[논는], 잡는[잠는], 밥물[밤물], 앞마당[암마당], 밟는[밤:는],  
웁는[음는], 엮는[엄:는], 값매대[감매대]

[붙임]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책 넣는대[챙넌는다], 흙 말리다[흥말리다], 옷 맞추다[온마추다], 밥 먹는대[밤멍는다],

값 매기다[감매기다]

ㄴ. 비음화 : 'ㄹ'이 자음 뒤에서 'ㄴ'으로 바뀌는 현상(표준발음법 제19항). 주로 한자어에서 나타나는데 동화현상이 아니라 교체현상이다.

○ 비음 'ㅁ, ㅇ' 뒤에서 'ㄹ'은 'ㄴ'으로 바뀐다.(표준발음법 제19항)

- 3) • 동화의 방향 : 순행동화(지연동화), 역행동화(예측동화)
- 동화의 정도 : 완전동화, 부분동화
  - 피동화음의 종류 : 자음동화, 모음동화
  - 동화의 거리 : 인접동화(직접동화), 원격동화(간접동화)

담력[담:녁], 침략[침낙], 강릉[강능], 향로[향:노], 대통령[대:통녕]

- 유음 ‘ㄹ’이 ‘ㅂ, ㄷ, ㄱ’ 뒤에서 ‘ㄴ’으로 바뀐다.(표준발음법 제19항 [붙임]) 이때는 바뀐 ‘ㄴ’의 비음성에 동화되어 ‘ㅂ, ㄷ, ㄱ’이 각각 ‘ㅃ, ㄸ, ㄲ’으로 발음한다.  
막론[막논 → 망논], 백리[백니 → 뱁니], 협력[협낙 → 협낙], 십리[십니 → 심니]

② 유음화 : 주로 한자어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ㄹ’과 인접한 ‘ㄴ’이 ‘ㄹ’로 바뀌는 현상.[표준발음법 제20항]

- 규칙 : ㄴ → ㄹ %ㄹ (‘ㄴ’은 유음 ‘ㄹ’ 앞뒤에서 ‘ㄹ’로 바뀐다.)<sup>4)</sup>

(1) 난로[날:로], 신라[실라], 천리[철리], 광한루[광:할루], 대관령[대:괘령]

(2) 칼날[갈랄] 물난리[물랄리] 줄넘기[줄럼기] 할는지[할른지]

[붙임] 첫소리 ‘ㄴ’이 ‘ㄷ’, ‘ㄸ’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달논[달른] 뚫논[뚫른] 할네[할레]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

의견란[의:견난], 임진란[임:진난], 생산량[생산냥], 결단력[결탄낙], 공권력[공편낙],

동원령[동:원녕], 상견례[상견네], 횡단로[횡단노], 이원론[이:원논], 입원료[이뵤노]

③ 조음위치 동화 : 선행 음절의 종성이 후행 음절 초성의 조음 위치를 닮아가는 현상이다. 이와 같은 동화는 같은 조건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의적이므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양순음화와 연구개음화가 있다.

ㄱ. 양순음화 : 치조음이 양순음 앞에서 양순음으로 바뀌는 현상.(표준발음법 [21항.ㄱ])

- 규칙 : [ㄷ, ㄴ] → [ㅃ, ㅃ] / \_\_\_{ㅃ, ㅃ, ㅃ, ㅃ}
- 첫머리[전머기](× [점머기]), 문법[문뻬](× [뉘뻬]), 꽃밭[꼇뻬](× [꼇뻬])

ㄴ. 연구개음화 : 연구개음이 아닌 ‘ㅂ, ㄷ, ㄹ, ㄴ’ 등이 연구개음 앞에서 연구개음인 ‘ㄱ, ㅇ’으로 바뀌는 현상. (표준발음법 [21항.ㄴ])

- 규칙 : [{ㅂ, ㄷ}, {ㄹ, ㄴ}] → [ㄱ, ㅇ] / \_\_\_\_ ㄱ
- 감기[감:기](× [강:기]), 옷감[올감](× [옥감]), 입고[일꼬](× [익꼬]), 꽃길[꼇길](× [꼇길]),

## (2) 구개음화(모음에 의한 자음의 동화)

① 개념 :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이’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와 만나 ‘ㅈ, ㅊ’이 되는 현상. ‘이’의 조음위치는 경구개 부근이기 때문에 구개음화는 비경구개음(非硬口蓋音)이 ‘이’의 조음 위치에 동화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표준발음법 제17항]

4)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는 그 성격이 다르다. 순행적 유음화는 음소배열제약을 어기지 않기 위한 현상이며, 단어 경계에서도 적용되고(부러질 나무 → 부러질라무), 비음화가 적용되지 않는다(칼날→\*칸날, 줄넘기→\*준넘기). 반면, 역행적 유음화는 음절배열제약을 어기지 않기 위한 현상이고, 단어 내부에서만 적용되며(끓은 라면 → \*끓을 라면), 비음화가 적용될 수 있다(청산리→청산니, 음운론→음운논). (이진호,2009 :122-124)

② 규칙 : [ㄷ, ㅌ] → [ㅈ, ㅊ]/\_\_\_+이

예) 곧이듣다[고지듣따], 곧이[구지], 미달이[미다지], 땀받이[땀바지], 밭이[바치], 벼훅이[벼훅치]  
[붙임]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굳히다[구치다], 달히다[다치다], 묻히다[무치다]

③ 기타 구개음화

- ㄱ. ㄱ-구개음화. 예) 기름 → 지름, 곁 → 절, 김치 → 집치
- ㄴ. ㅎ-구개음화. 예) 힘 → 심, 형님 → 성님, 흥하다 → 송하다.
- ㄷ. ㄴ-구개음화. 예) 녀석(nyəsək → nyəsək)<sup>5)</sup>
- ㄹ. ㄹ-구개음화. 예) 가리다(karida → kaɾida)

• 이 중 ‘ㄷ, ㄹ’은 이음과정이고, ‘ㄱ, ㄴ’은 남부방언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비표준발음이다.

### 역사적 구개음화

☞ ‘마디, 견디다’는 역사적으로 ‘마디, 견디다’에서 변하였다. 이런 사실로부터 ‘마디, 견디다’에 ‘ㄷ-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 설명하기.

모든 음운 현상은 역사적으로 ‘생성-성장-소멸’의 단계를 거친다. 구개음화 역시 예외는 아니다. 구개음화가 생겨서 성장하는 동안에는 ‘마디, 견디다’ 등이 ‘마디, 견디다’이었다. 이때는 구개음화의 환경을 만족하지 못해서 규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19세기에 있는 이중모음의 단모음화에 의해 ‘마디, 견디다’가 ‘마디, 견디다’로 바뀌면서 구개음화의 적용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에는 형태소 내부에서 적용되는 구개음화 규칙이 소멸됨으로써 이런 환경에서 구개음화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부연 : 구개음화는 17~8세기 교체기에 일어났다. 구개음화의 결과 ‘디 닢 더 도 듀’, ‘티 탁 터 투 튜’ 등의 결합이 국어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현상에 의해, ‘디, 티’ 등이 ‘디, 티’로 변하게 되어 다시 이들 결합이 나타나게 되었다. 무디다>무디다, 견디다>견디다 등.

※ 구개음화 규칙의 변화

1단계 구개음화 : ㅈ[ts] → ㅉ[tʃ]

2단계 구개음화 : ㄷ → ㅈ/\_\_\_ { | . 이 }

3단계 구개음화 : ㄷ → ㅈ/\_\_\_ +{ | . 이 } ‘+’는 형태소 경계

(2단계 구개음화와 3단계 구개음화 사이에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규칙이 존재한다.)

### (3) 모음동화(모음에 의한 모음의 동화)

•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동화현상으로 한 모음이 다른 모음을 닮아가는 현상.

#### ① ‘이’ 모음 동화

ㄱ. 이-역행동화(=음라우트) : ‘후설모음 + [C, -설정성] + 이/ | ’ 연쇄에서 후설모음 [ ㅏ ,

5) 역사적으로 어두에서 ‘이, y’에 선행한 ‘ㄴ’의 탈락은 ‘ㄴ-구개음화’와 관련이 있다(이기문, 1998:208-209). 예) 임금(<님금), 일음이라(<니름, 謂), 이르히(<니르히, 至).

ㄱ, ㄴ, ㄷ이 ‘이/ㅣ’의 전설성에 동화되어 각각 [개, 깨, 괴, 귀]로 바뀌는 현상. 표준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표준어규정 제9항]

예) 손잡이→[손잡이], 먹이다→[멕이다], 고기→[괴기], 학교→[핵교]

- 규칙 : [+후설모음] → [-후설모음] / \_\_\_\_-[C, -설정성]{y/이}

ㄴ. 이-순행동화 : ‘이’ 뒤에서 ‘ㄱ, ㄴ’가 각각 ‘ㅋ, ㄴ’로 바뀌는 현상. 표준발음으로 인정한다.(표준발음법 [제22항])

예) 기어[기어/기여], 먹이었다[머기얼따/머기열따], 미시오[미시오/미시요],  
피어[피어/피여], 되어[되어/되여], 이오[이오/이요], 아니오[아니오/아니요]

<참고> 학교 문법에서는 ‘이-순행동화’로 다루고 있으나 이것은 ‘y-첨가’현상이다. 후술하는 첨가현상 참조. (∅ → y / 이\_\_\_\_)

**[한글 맞춤법 : ‘이-순행동화’에 의한 발음의 표기]**

제15항 [붙임2]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

- 이것은 책이오. 이것은 책이 아니오./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요, 또 저것은 먹이다.

**② 모음조화**

ㄱ. 국어의 모음들은 같은 종류의 모음끼리 어울리는데, 양성모음 ‘ㅏ, ㅑ’는 ‘ㅏ, ㅑ’끼리, 음성모음 ‘ㅣ, ㅓ, ㅕ, ㅗ, ㅛ, ㅜ, ㅠ’는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려는 현상.(문법 교과서에서 ‘ㅣ’모음은 음성모음으로 분류)<sup>6)</sup>

ㄴ. 의성어와 의태어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난다.

예) 알록달록/얼룩덜룩, 졸졸/줄줄, 달랑달랑/덜렁덜렁  
(비교) 장구(<장고, 杖鼓), 오뚝이(<오뚝이), 깡충깡충(<깡충깡충)

ㄷ. 규칙의 적용 : 음운규칙으로서의 모음조화는 용언 어간에 연결되는 모음 어미 ‘-아/-어’에 한정된다. 용언 어간의 마지막 모음이 ‘ㅏ, ㅑ’이면 뒤에 ‘-아X’의 어미가 연결되고, 나머지 모음이면 ‘-어X’의 어미가 연결된다.<sup>7)</sup>

ㄹ. 참여 어미 : ‘-아/-어’, ‘-아도/-어도’, ‘-아라/-어라’, ‘-았-/-었-’

6) ‘아’와 ‘오’는 같은 양성모음으로 분류하지만 성격이 약간 다르다. ‘잡아라~잡어라, 볍아라~\*볶어라’에서 보면 받침이 있을 경우 ‘아’는 중성모음적 성격을 보이지만, ‘오’는 양성모음으로만 행동한다. 그러나 받침이 없을 때는 ‘아, 오’ 모두 양성모음으로만 행동한다. ‘가라(←가-아라) ~ \*가-어라’ 보-아라 ~ \*보-어라

7)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모음조화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모음조화 비교

| 구분    | 중세국어    | 현대국어      |
|-------|---------|-----------|
| 단어 내부 | 비교적 지켜짐 | 지켜지지 않음   |
| 체언+조사 | 잘 지켜짐   | 지켜지지 않음   |
| 용언+어미 | 잘 지켜짐   | 부분적으로 지켜짐 |

예) 깎-아, 잡-아, 가-아(→가), 먹-어, 비-어, 그-어

### <참고>

---

---

- 모음의 계열에 따른 어감(이송녕, 1971:267)

양성모음의 어감 : 輕 明 淺 清 薄 剛 近 密 小 少 狹 急 短 濃 銳 強  
음성모음의 어감 : 重 暗 深 濁 厚 柔 遠 疎 大 老 廣 緩 長 淡 鈍 弱

- 모음조화가 지켜지지 않는 예들

중세국어에서는 모음조화가 비교적 엄격하게 지켜졌으나, ‘으’와 대립하던 ‘우’가 비음운화하고, ‘ㅣ’가 음성화되면서 현대 국어에 와서는 상당히 문란해졌다.

예) 보슬보슬, 소곤소곤, 꿈질꿈질, 몽실몽실, 산들산들, 반들반들, 남실남실, 자글자글  
-용언의 활용에서 : 아름다워, 차가워, 놀라워. <참고> 고와, 서러워, 무거워.

---

---